

## 다보탑

다보탑은 역시 건너지 절에 있는 오층탑과는 형태가 크게 다르지만 이 탑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도의 장입니다. 오층탑이 석가여래라고 하는 과거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데 비해 다보탑은 미래의 부처님 가운데 한 사람인 다보여래를 모시고 있습니다. 오층탑에는 종종 석가모니의 유골 등의 유물이 그 기단 아래에 모셔져 있어서 부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, 다보여래는 이 지상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물을 모실 수 없습니다. 그 대신 이 건축물의 모습은 불교의 중심적인 경전 가운데 하나인 법화경(法華經)에 기록된, 과거의 부처님과 그 제자들 앞에 탑의 형태로 모습을 나타낸다는 다보여래에 관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. 법화경에 따르면 다보여래는 무한한 저편에 있는 '보정(寶淨)'이라는 나라에 살며, '보탑(寶塔)'이라는 탑 안에 거처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보여래는 진언종에서 특히 중요하며, 다보탑도 주로 진언종 사원과 관련이 있는 탑입니다.